

- ▶ 15-64세 고용률(70.7%)과 고용률(62.3%) 모두 동월기준 최고 기록
- ▶ 취업자(+2만 9천명)는 2개월 연속 증가
 -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와 제조업의 감소폭 축소 영향

(전년동월대비)

| | 취업자 증가 | 취업자 감소 |
|-----------|---|--|
| 성별 | 여성(+4만 5천명) | 남성(-1만 6천명) |
| 연령 | 60세이상(+8만 5천명), 50대(+9천명), 30대(+7천명) | 청년(-6만 2천명), 40대(-9천명) |
| 산업 |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10만 2천명) | 제조업(-4만 5천명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1만 5천명), 건설업(-8천명), 도소매·숙박음식업(-2천명) |
| 종사상 지위 | 상용근로자(+2만 8천명), 자영업자(+2만 6천명), 일용근로자(+5천명) | 임시근로자(-2만 5천명), 무급가족종사자(-4천명) |
| 직업 | 고용원 유 자영업자: +1만명 고용원 무 자영업자: +1만 5천명 | 서비스·판매 종사자(+3만 4천명), 단순종사자(+1만 7천명), 기능원(+7천명) |
| 취업시간 | 서비스·판매 종사자(+3만 4천명), 단순종사자(+1만 7천명), 기능원(+7천명) | 관리자·전문가(-3만 2천명), 기계조작·조립종사자(-1천명) |
| | 36시간 이상(+47만 7천명) | 36시간 미만(-41만 3천명), 일시휴직자(-3만 5천명) |

15-64세 고용률(%) 추이



전국

서울

(전년동월대비)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전체 인구 (주민등록) | 5,115만 5천명 · 10만 2천명 감소(0.2%↓) | 932만 2천명 (전국의 18.2%) · 3만 4천명 감소(0.4%↓) |
| 15세이상 인구 | 4,577만 9천명 · 20만 3천명 증가(0.4%↑) | 844만 2천명 (전국의 18.4%) · 2만 5천명 감소(0.3%↓) |
| 경제활동 인구 | 2,955만 9천명 · 19만 4천명 증가(0.7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4.6%(0.2%p↑) * 청년층 47.4%(1.3%p↓) | 537만 4천명 (전국의 18.2%) · 1만 4천명 증가(0.3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3.7%(0.4%p↑) |
| 취업자 | 2,896만 7천명 · 16만 6천명 증가(0.6%↑) - 고용률 63.3%(0.1%p↑) - 15~64세 고용률 69.9%(0.1%p↑) * 청년층 45.1%(1.6%p↓) | 526만 1천명 (전국의 18.2%) · 2만 9천명 증가(0.6%↑) - 고용률 62.3%(0.5%p↑) - 15~64세 고용률 70.7%(0.1%p↑) |
| 실업자 | 59만 2천명 · 2만 8천명 증가(4.9%↑) - 실업률 2.0%(0.1%p↑) * 청년층 4.9%(0.8%p↑) | 11만 3천명 (전국의 19.2%) · 1만 5천명 감소(11.7%↓) - 실업률 2.1%(0.3%p↓) |
| 비경제 활동인구 | 1,622만명 · 9천명 증가(0.1%↑) | 306만 8천명 (전국의 18.9%) · 3만 9천명 감소(1.3%↓) |

청년층 자료: *전국(월별 발표)

- 경제활동참가율(%)
경기(65.2) > 인천(64.9) > 서울(63.7) = 대전(63.7) > 광주(63.1) > 울산(60.7) > 부산(59.6) > 대구(59.2)
- 고용률15~64세(%)
서울(70.7) > 경기(70.3) > 인천(69.4) > 대전(68.8) > 부산(68.0) > 광주(66.8) > 울산(66.6) > 대구(65.2)
- 실업률(%)
인천(2.4) > 경기(2.3) > 광주(2.2) > 서울(2.1) = 부산(2.1) = 대구(2.1) > 대전(2.0) > 울산(1.5)

2025년
8월
서울고용동향

서울지역 고용지표 양호 -15~64세 고용률, 고용률 모두 동월기준 역대 최고

* 조사대상주간: '25.8.10.~8.16.

총괄

- 15~64세 고용률은 70.7%(+0.1%p)로 4개월 연속 70.0%를 상회, 전국(69.9%) 보다 0.8%p 높음
- 고용률은 62.3%으로 전년동월대비 0.5%p 상승하며 동월기준 역대 최고 기록
- 남성(-9천명), 여성(-6천명) 실업자 모두 감소하며, 실업률(2.1%)은 전년동월대비 0.3%p 하락

취업자수

취업자(526만 1천명, +2만 9천명)는 돌봄복지와 60대 이상 위주 증가 지속

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8)28 (9)64 (10)24 (11)-13 (12)-12 ('25.1)-94 (2)-98 (3)-108 (4)-72 (5)4 (6)-22 (7)28 (8)29
- * (전국) 취업자수(+16만 6천명)는 보건·복지, 교육서비스 등의 증가 지속, 숙박·음식은 개선되었으나 청년층, 건설, 제조업의 어려움 지속
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8)123 (9)144 (10)83 (11)123 (12)-52 ('25.1)135 (2)136 (3)193 (4)194 (5)245 (6)183 (7)171 (8)166

산업별

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나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이 감소 전환하고 제조업의 어려움 여전

▶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10만 2천명, +4.6%)은 돌봄수요, 직접일자리 증가 등 영향으로 증가 지속

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8)14 (9)42 (10)78 (11)73 (12)111 ('25.1)93 (2)71 (3)75 (4)66 (5)105 (6)95 (7)132 (8)102

▶ 제조업(-4만 5천명, -10.0%)은 도심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14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하나 감소폭은 축소

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8)-38 (9)-54 (10)-70 (11)-77 (12)-101 ('25.1)-104 (2)-99 (3)-131 (4)-145 (5)-129 (6)-117 (7)-82 (8)-45

▶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1만 5천명, -1.4%)은 정보통신분야 기채용 영향으로 30개월만에 감소 전환

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8)97 (9)97 (10)71 (11)52 (12)37 ('25.1)38 (2)35 (3)34 (4)50 (5)34 (6)10 (7)9 (8)-15

▶ 건설업(-8천명, -2.6%)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10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

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8)-25 (9)-8 (10)4 (11)-5 (12)-14 ('25.1)-34 (2)-36 (3)-49 (4)-35 (5)-6 (6)-5 (7)-9 (8)-8

▶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-2천명, -0.2%)은 2개월 연속 감소 하나 소비심리 회복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

- 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8)-20 (9)-12 (10)-58 (11)-56 (12)-44 ('25.1)-84 (2)-68 (3)-35 (4)-3 (5)4 (6)1 (7)-16 (8)-2

- * 소비자심리지수(CCSI): ('24.8)100.8 (9)100.0 ... (12)88.2 ('25.1)91.2 (2)95.2 (3)93.4 (4)93.8 (5)101.8 (6)108.7 (7)110.8 (8)111.4

- * (전국) 보건·복지(+30만 4천명), 교육서비스(+4만 8천명), 부동산업(+4만명) 등에서 증가 및 숙박·음식점업(-0.3천명)의 개선
농림어업(-13만 8천명), 건설업(-13만 2천명)의 감소폭 확대,와 제조업(-6만 1천명)의 감소 지속. 정보통신(-1만 6천명)의 감소 전환

연령별

- 청년층(-6만 2천명)은 감소폭 확대, 40대(-9천명)는 감소로 재전환
- 60세 이상(+8만 5천명)은 증가폭 확대, 30대(+7천명)와 50대(+9천명)는 증가 전환

- * (전국) 청년층(-21만 9천명)의 감소폭 확대와 40대(-7만 3천명), 50대(-3만 8천명)의 감소세 지속
60세 이상(+40만 1천명)과 30대(+9만 6천명)는 증가세 지속

종사상

- 상용직(+2만 8천명)과 일용직(+5천명)은 증가, 임시직(-2만 5천명)은 감소 지속

지위

- 고용원 有 자영업자(+1만명), 고용원 無 자영업자(+1만 5천명) 증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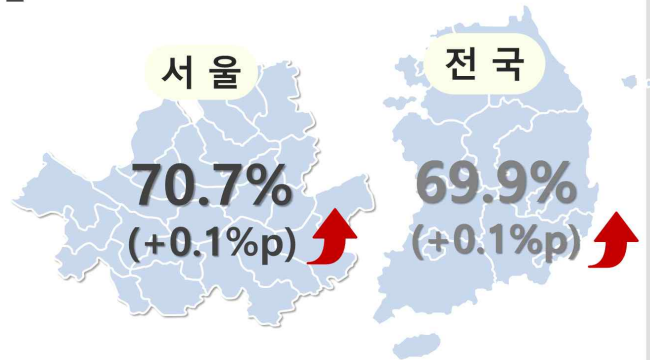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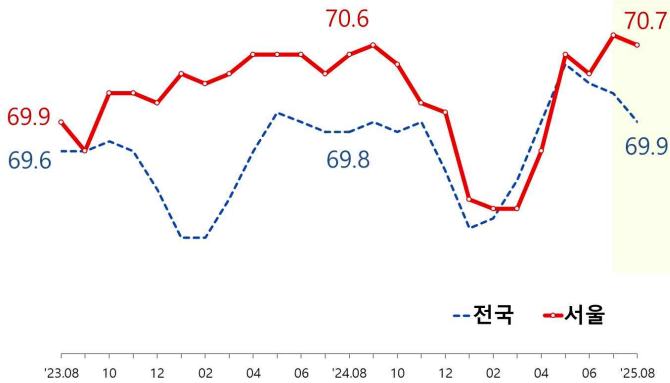
- * (전국) 상용직(+34만 8천명)은 증가 지속하는 반면, 일용직(-6만 7천명)은 감소 지속하고 임시직(-1만 2천명)은 감소 전환
고용원 有 자영업자(-5천명), 고용원 無 자영업자(-6만 5천명) 감소 지속



서울지역 고용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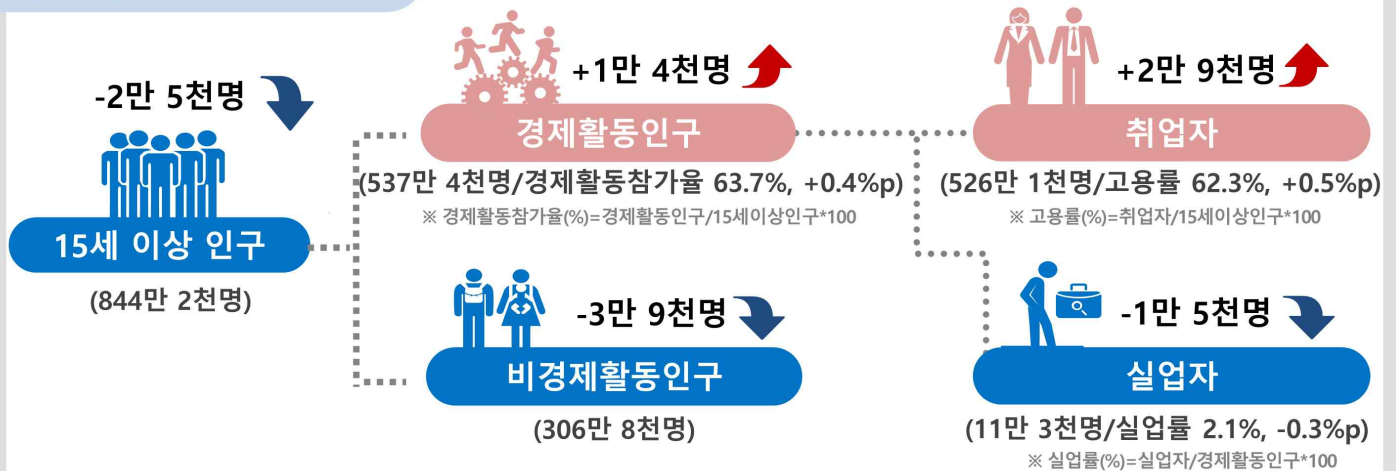
고용률(15~64세) OECD기준

※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경제활동인구 구조

※ 15세 이상 기준,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취업자수 증감

※ 전년동월대비 증감(률)

